

## 부랴트어 소멸위기와 민족정체성:

러시아연방 부랴트공화국을 중심으로

이정덕\* · 전봉수\*\*

### 1. 서론

부랴트족은 러시아연방의 동 시베리아 지역에서 가장 큰 소수민족으로 17세기 이후 약 330여 년 간 타민족의 지배를 받아온 민족이다. 부랴트족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자신들의 언어를 잘 유지했지만 최근 35여년 사이 급속하게 민족어 사용자가 줄어들면서 민족어의 소멸위기에 처해있다.

197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소련 내 부랴트인의 수 314,671명 중 민족어 사용자 수는 291,432명<sup>1)</sup>으로 부랴트어는 활발하게 사용되는 언어였다. 1989년 인구조사 통계는 1970년과 1989년 사이 부랴트족 중 민족어를 구사할 수 없는 사람들의 수가 2배로 증가했다(성종환 2003: 28)<sup>2)</sup>는 것을 보여준다. 필자가 2004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 부랴트

---

\*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석사과정

1) “USSR in Figure for 1979, Moscow, 1981”를 전명선(1994: 206)에서 재인용.

2) 1989년 이후 부랴트어 사용에 관한 통계조사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랴트족

공화국에서 현지조사를 실시 할 당시 만난 대부분이 부랴트인들은 공화국 내 부랴트족 중 약 20~25% 정도만이 부랴트어를 구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말했으며 실제로 필자가 부랴트어 소멸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접한 수 백 명의 부랴트인들 중 도시와 지방의 차이가 있으나 대략 20~25% 정도만이 부랴트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sup>3)</sup> 부랴트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할 수 없는 약 80%의 부랴트인 중 대부분은 몇 개의 단어를 알아듣지만 부랴트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며 이중 소수는 대화의 내용을 조금 파악할 수는 있으나 말은 전혀 할 줄 모르는 수준이었다. 또 부랴트 공화국 내에서 부랴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대부분 40대 이상으로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부랴트어 사용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언어는 언어 사용자들의 생태환경과 사회 환경 그리고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창이다. 언어는 정신세계가 물질세계에서 표현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언어는 민족의 독자성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로 인정된다(Olcott, 1990: 235). 특히 앤더슨은 유럽에서 민족을 형성하는 데 언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Anderson, 2006). 이러한 연구들은 언어가 민족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다민족 사회에서 특정 민족의 언어가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의 정체성이 계속 유지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집단의 민족 또는 종족집단들이 언어를 상실하거나 상실되는 위기에 처하였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다. 또는 만주족처럼 언어를 상실함에 따라 민족정체성도 크게 줄고 따라서 그 민족의식을 느끼는 사람 수도 크게 줄어드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언어의 민족정체성과의 연관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민족언어가

---

중 부랴트어를 민족어로 사용하는 부랴트인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

3) 영국의 저널리스트 안나 레이드(2003)의 부랴트공화국 1990년대 후반 방문 보고 역시 동일한 지적을 하고 있다.

민족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민족언어가 소멸과정에서 민족정체성과 어떻게 관련되는가의 측면도 이해되어야 한다.

유네스코는 ‘제3회 세계 모어의 날’을 맞이해 발간한 ‘세계 사멸위기 언어지도 보고서’를 통해 세계 6528개의 언어 중 절반이 타민족에 대한 언어정책과 유력언어의 문화적 경제적 흡인력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지난 500년간 이미 인류 언어의 절반이 절멸했고, 이번 세기가 끝날 때쯤 다시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했다.<sup>4)</sup>

실제로 호주정부는 1970년대 까지 원주민들의 모어 사용을 금지하여 수 백 가지 원주민언어를 소멸시켰으며 미국에서는 유럽인의 이주 이전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수 백 가지 언어 가운데 150 언어만이 살아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정부의 압력으로 중국 내 소수민족 언어의 앞날이 불투명하며, 일본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등 태평양지역은 2천여 언어가 사용되는 등 언어 다양성이 풍부하지만 이것들 역시 급속히 소멸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EU의 다중언어정책(Multilingual policies)에도 불구하고 50여 개 언어가 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도 1400개의 언어 중 550여 개가 쇠퇴하고 있으며 250개는 현저한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네론자크는 160여 민족으로 이루어진 러시아연방에서도 소수민족 언어의 반 정도가 이와 같은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에 속하며, 이들 언어를 희생하기 위한 특별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더 많은 소수민족언어가 소멸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성중환 2003).

특정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수가 10만 명이 안 되는 언어를 소멸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는 유네스코의 규정과 해당언어권의 어린이들 30% 이상이 언어를 배우지 않을 때 멸종위기에 놓인 것으로 간주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참조할 때 부랴트어는 소멸위기에 처한 언어이다.

---

4) <http://www.win2korea.com/words/main.htm>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시베리아 소수민족인 부랴트족의 언어 소멸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소멸위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부랴트인의 민족정체성이 유지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랴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부랴트공화국을 중심으로 조사한 것이다. 필자 중의 하나는 본 연구를 위해 2004년 7월 초부터 2005년 7월 초까지 약 1년간 러시아연방 부랴트공화국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인터뷰 자료는 현지조사 기간 안에 조사된 것이다. 인터뷰는 주로 부랴트공화국의 수도인 울란우테와 지진스키 라이온의 알작 마을에서 실시하였다. 울란우테는 부랴트공화국에서 가장 큰 도시이다. 인터뷰는 본조사자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러시아어로 실시되었다.<sup>5)</sup>

## 2. 부랴트족의 역사와 인구구성

우리가 백인국가로 알고 있는 러시아연방에는 수많은 소수민족<sup>6)</sup>들이 살고 있다. 러시아연방 정부는 그 중 규모가 큰 소수민족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21개의 민족공화국 과 10개의 자치구 그리고 1개의 자치주를 허용하고 있다. 구소련 붕괴 당시 구소련을 이루고 있던 공화국<sup>7)</sup>들은 독립을 선언하였지만 소 연방 형성 이전 이미 러시아 안에 있었던 소련시절의 자치공화국들은 러시아 연방 내 공화국으로 승격을 인정받으면서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포기했고<sup>8)</sup> 이들은 법적 연방의 주체로 러시아연방을 이루고 있다. 당시 독립하지 못했던 소수민족들은 러

---

5) 부랴트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부랴트인들이 있지만, 러시아어로는 모든 부랴트인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6) 1989년에 실시된 소련의 마지막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러시아 학술 아카데미가 1994년 발간한 ‘НАРОДЫ РОССИИ, 1994, 433쪽.

7) 구소련의 공화국들은 1991년 이후 독립한 나라들로 당시의 자치공화국과 구분이 된다. 이들 국가들은 현재 CIS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다.

8) 북카프카즈의 ‘체첸공화국’은 예외이다.



〈그림 1〉 부랴트공화국의 위치(출처 Терский 외, 2001: 13)

시아 연방 안에 공화국, 자치구 그리고 자치주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거나 아무런 자치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러시아연방에 남게 되었는데 부랴트족은 부랴트공화국과 우스찌오르딘스키 자치관구 그리고 아긴스키 자치관구를 인정받아 소련시절을 이어 자치를 계속하고 있다.

부랴트족이 <소중한 이야기>(1240)라는 몽골 문헌 속에 처음으로 등장하기 이전부터 부랴트족은 동 시베리아 남부의 바이칼호수 동·서편에 광범위하게 살고 있다(Михайлова 외, 1990, 4). 이들은 13

세기 오고타이의 침략을 받아 이후 몽골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였고, 17세기 초부터 카자크의 침략이 시작되면서 부랴트족은 격렬히 저항하였다. 여러 개의 종족으로 흩어져 있던 부랴트족은 카자크를 맞아 싸우면서 카자크나 러시아인과 다른 범몽골계통이라는 정체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러시아는 1688년 우다와 실린가가 만나는 지점에 월동기지를 만들고 점차 영역을 확장시켜 나갔다. 부랴트족의 저항이 격렬해서 17세기 말경에 이르러서야 이 지역 전체가 러시아령이 되었으며 이 지역 전체가 러시아령이 되면서 이것을 계기로 바이칼에 인접한 영토를 몽골로부터 분리하여 러시아에 속하게 되었다(네르친스크 조약, 1689). 러시아 국가체제가 갖춰지면서 다양한 민족 그룹을 영토적 집단으로 조직하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 바이칼 호수 동남지역에 거주하는 불라갓뜨, 에히릿뜨, 호리 등의 집단이 부랴트족이라는 하나의 ‘이족(異族)’으로 분류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부랴트’라는 집단의식이 강화되면서 19세기 말경 몽골계통의 부랴트 민족이라는 공통의식이 일반화되었다. 러시아제국에 편입되어 정치적으로 영토를 지닌 ‘이족(異族)’으로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박태성, 김선진, 1999: 363), 동질적 집단의식이 강화되었다.

20세기 초 혼란의 시기에 일본군, 미국군의 지배를 받기도 하였으나 1920년 소련의 적군이 탈환하여 1921년에는 극동공화국에, 1922년에는 러시아공화국에 각각 부랴트-몽골 자치주가 세워졌다. 극동공화국이 폐지됨에 따라 1923년 5월에 부랴트-몽골 자치공화국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1958년에는 공화국의 명칭에서 ‘몽골’을 없애고 ‘부랴트자치공화국’으로 바꾸었고, 1991년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다시 ‘부랴트 공화국’으로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최한우, 1997).

17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 부랴트인의 숫자는 27,700명에서 약 300,000명까지 늘어났으며 오늘날 부랴트 공화국을 포함한 러시아 연방에 거주하고 있는 부랴트인은 약 44만 명 쯤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랴트 사람들은 몽골어계통의 언어를 사용하고, 체질인류학적으로는 몽골인종에 속한다(Zhukovskaia Natalia, 1997: 65). 오래 전부터 부랴트족은 실링가·우다·꾸다·바이칼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1989년 인구통계에 의하면 당시 러시아 내 부랴트족은 부랴트 공화국에 249,525명, 이르쿠츠크 주에 12,874명, 우스찌오르딘스키 자치구에 49,600명, 치타 주에 7,406명, 아긴스키 자치구에 42,300명, 야쿠트공화국에 8,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Терский 외 2001: 461). 이 중 부랴트족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치지역은 부랴트공화국이며 가장 큰 도시는 부랴트공화국의 수도인 울란우데이다. 울란우데는 동시베리아 북부의 산악타이가와 남부의 중앙아시아 스텝이 만나는 지역으로 몽골에서 발원한 실링가와 부랴트 공화국 서북부에서 흘러오는 우다가 만나는 지역이다.

1989년 인구통계에 따르면 부랴트 공화국의 인구는 약 1,038,200명이며 이중 부랴트인은 24%이다. 치타 주의 아긴스키 자치구 전체 인구 중 부랴트족 비율이 50%를 넘지만 이르쿠츠크 주의 우스찌-오르딘스키 자치구의 부랴트족 역시 자치 지역 내 소수를 면치 못하고 있다(Терский 외 2001: 460). 러시아 연방 내 다른 소수민족 공화국이나 자치구와 같이 부랴트인도 자신들의 자치지역 안에서 소수를 면치 못하고 있다.

소련은 몽골과의 연계성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공화국 이름에서 몽골을 삭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어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행하였다. 소련정부는 1936년 시베리아와 극동지방에서 소수민족의 모든 언어를 키릴문자로 표기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파스파문자(몽골어 전통문자)를 사용하던 부랴트족의 언어도 키릴문자로 바꾸었다. 또한 몽골어와 직접대화가 가능한 촌골로-싸르풀스키(Цонголо-Сартульскийский) 방언을 배제하고 호린스크 방언을 표준어로 정해 사용하게 했다.<sup>9)</sup> 범몽골주의가 크게 약화되었지만 언어와 체질의 유사성을 때

개로 범몽골의 일부라는 의식이 지금도 부랴트인들에게 남아 있다.

### 3. 부랴트어 소멸위기의 원인

#### 1) 러시아어 공용어 정책

공산주의혁명 이후 레닌은 러시아 제국시절의 소수민족들로부터 혁명과 정치체제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도 소수민족 문화말살 정책을 펼치지는 않았다. 레닌부터 시작한 소련의 언어정책은 소수민족의 언어를 보호하고 장려한다는 기본원칙을 내세웠다.

레닌은 러시아 내 제 민족들로부터 혁명정부에 대한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민족문화 옹호 정책의 세 가지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첫째는 소수민족 구어를 문어로 정착시키고 표기수단으로 라틴알파벳을 차용, 둘째는 민족지역에서의 교육을 해당언어로 실시, 셋째는 모든 민족어는 동등한 지위를 보장과 각 민족 지역 안에서 완전한 권리 보장이다(허승

---

9) 몽골계열의 언어연구자들은 부랴트어를 몇 개의 방언 군으로 나누고 있다. 호린스크 방언 집단, 에히리트-볼라갓뜨 방언 집단, 알라르-툰긴스크 방언 집단, 촌골르-싸르뚜 방언 집단이 그것이다(방언, 종족, 의사소통의 정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Терский П.А 외 2001.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ЫЙ АТЛАС ВУРЯТИИ』. МОСКВА: 258-259쪽을 참조할 것). 소련 정부는 부랴트족의 범몽골주의를 견제하고자 몽골어와 대화가 불가능한 호린스크 방언을 표준어로 정했다. 부랴트 공화국에서는 다른 방언이 다른 부랴트사람끼리 부랴트어로 대화를 하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부랴트 공화국에서는 러시아어로 거의 모든 방송을 하지만 하루에 한 두 차례 정도 부랴트어 뉴스를 진행한다. 이때 사용하는 부랴트어는 오래 전부터 표준어로 정한 호린스크 부랴트어인데 부랴트어를 구사하는 모든 부랴트인이 표준부랴트어를 알아듣는 것이 아니다. 에라브닌스키, 키진긴스키 그리고 호린스키 라이온에 거주하는 부랴트인들은 장애 없이 알아듣지만 지진 스키 라이온에 거주하며 촌골로-싸르뚜 방언을 사용하는 부랴트인들은 뉴스를 전혀 못 알아듣는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호린스크 방언군에 포함되지 않는 대부분의 부랴트인들이 표준부랴트어를 알아듣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 방언이 다른 부랴트인들끼리 부랴트어로 대화를 하면 의사전달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출신이 다를 경우 부랴트어로 대화를 하지 않는다. 원활한 대화를 위해 고향이 다른 부랴트인들은 도시에서 만나 대화를 하게 되면 러시아어로 대화를 나누게 된다.



철 1993: 145-146). 레닌이 제시한 세 가지 원칙은 동 시베리아 일대에 살고 있던 부랴트족에게도 적용이 되었으며 레닌의 민족어 옹호정책은 부랴트어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레닌 사후 소련은 통일된 사회주의국가를 위해 소수민족들의 언어 지위를 격하시켰다. 스탈린의 등장과 더불어 일국 사회주의론이 등장했고 1920년대에는 중앙아시아, 1936년에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소수민족들의 모든 언어를 키릴문자로 표기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1939년 부랴트족은 그 때까지 사용하던 파스파문자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부랴트족의 전통문자가 사라지게 되었다.<sup>10)</sup> 이러한 정책은 소련 내의 소수민족들의 소련 외의 국가들과의 연계를 단절하려는 소련정부의 노력의 결과였다(Olcott 1990: 234). 1938년 소련 정부는 소련 전 지역의 학교에서 러시아어를 필수과목으로 채택한 법령을 선포하여 학교를 다니는 모든 부랴트족 역시 러시아어를 필수적으로 배우게 하였다. 레닌이 원칙으로 내세웠던 ‘모든 민족어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이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허승철, 1992: 148).

1958년과 1959년에 걸친 교육개정안에서는 민족어를 자기민족 지역 안에서 선택과목으로 배우게 하였으며 러시아어 학교와 민족어 학교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이러한 교육개정안은 소수민족들의 민족어 발전에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표현이었으며 초등교육과정에서도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각 소수민족 지역에서 관공서의 문서, 정부기관의 교육 등에서도 민족어 사용이 공개적으로 비난받기 시작했다(허승철, 1992: 147-148).

브레즈네프 시대에는 1938년과 1958년 같은 급진적 개혁조치를 실

---

10) 조리투엿 쾨렌 줄로토이비치는 1915년 키진긴스키 라이온 출생으로 인터뷰 당시 울란우데에 거주하고 있었다. 조리투엿 쾨렌 줄로토이비치는 인터뷰 당시 90세의 노인으로서 거동하지 못하고 비교적 최근 일은 기억 못하고 있었으나 아주 오래된 과거의 일은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래된 나이와 년도를 계산한 후 “1931년부터 옛날 몽골문자를 쓰지 못하게 했고 아마도 1939년부터 러시아 문자를 사용하게 했다”라고 증언했다.

시하지 않았지만 여러 차례의 언어회의를 통해 새로운 조치들이 제안되고 채택됨으로 러시아어를 소비에트국민의 언어로 확실히 등극시켰다. 여러 차례의 언어회의 중 1975년과 1979년의 타쉬켄트 회의는 러시아어 공용화와 러시아어 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옴으로 부랴트 지역에서의 민족어 사용에 결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

1975년 회의에서는 모든 연방 내 공화국에서 러시아어교육을 1학년 때부터 실시할 것, 러시아어 교육시간의 확대할 것, 러시아어 집중교육 제도의 개선할 것 그리고 중등학교에서의 군사훈련을 러시아어로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 1979년 제2차 타쉬켄트 회의에서는 ‘러시아어-소련국민의 우애와 협동의 언어’라는 주제로 회의가 열려 민족지역에서 유치원까지 러시아어 교육 확대할 것, 정규학과 이외의 과외활동이나 예·체능 행사도 러시아어로 실시할 것, 텔레비전과 신문들 문화생활을 러시아어로 할 것을 권장할 것, 고등교육 부분에서 인문·사회 분야의 모든 학과는 러시아어로 강의진행 할 것, 마지막으로 각종 논문 및 보고서 등은 러시아어로 제출할 것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법적 조치로 인해 러시아어가 구소련 내에서 확실하게 국가의 공용어로 사용되게 되면서 모든 소수민족 지역에서 러시아어 사용자와 이중언어 사용자가 빠르게 증가하였다(Khanzarov, 1990; Guboglo 1990).

당시 부랴트자치공화국에서도 부랴트어의 지위가 크게 축소되었고 부랴트어 사용입지가 줄어들게 되면서 부랴트어사용자가 계속 줄어들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부랴트족 중 울란우데 출생이거나 지방에서 러시아인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태어난 부랴트족은 부모가 부랴트어를 사용할 때 가정에서만 부랴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조사자: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떤 말로 공부를 하나요?

제보자: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교과서와 문서는 모두 러시아어로 되어있죠.

수업은 모두 러시아어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러시아 연방 전체 영토에서 기준은 하나죠. 교과서도 교육과정도 하나인데 어떻게 러시아어 말고 다른 말로 수업을 할 수 있겠어요?

조사자: 일상생활에서는요?

제보자: 지구스타이같은 부랴트 마을<sup>11)</sup>에서라면 가족들이 모두 부랴트어로 대화를 하고 마을 전체에서 부랴트말로 대화를 하죠. 근데 학교에서만은 러시아어를 하고 러시아로 수업을 하지요. 러시아 전 국토에서 언어의 기준은 러시아어 하나이죠. 모든 교과서가 러시아어로 쓰여져있고, 공적인 일은 모두 러시아어로 하게 되어있죠. 그래서 러시아어로 하는 거죠.

조사자: 그렇다면 부랴트 마을에서 아이들이 러시아어를 잘하나요?

제보자: 아니요, 부랴트 마을에서 부랴트 아이들은 학교를 다녀도 러시아어를 잘하지 못해요. 모든 생활 속에서 부랴트 말로 하는데 학교에서 러시아어로 한다고 러시아어를 잘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학교에 간 이상 아이들은 모두 러시아어를 해야 되는 거지요.

조사자: 왜 모든 부랴트인이 러시아어를 배워야 하지요?

제보자: 왜냐하면 부랴트인이 러시아에 살기 때문이죠.

조사자: 그렇지만 당신들은 부랴트 사람이잖아요.

제보자: 러시아에 수많은 민족들이 살지만 그들은 모두 러시아어를 하지요. 우리가 부랴트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러시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어를 하는 것이고 러시아로 말해야만 러시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하공화국에 있는 사하인들도 그들의 언어가 있지만 러시아어를 하지 않고는 러시아에서 살아갈 수 없는 걸요. 우리는 부랴트 사람이지만 러시아에 살고 있지요. 우리가 러시아에 살고 있는 한 소수인 부랴트 사람들은 러시아인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데 공용어는 결국 러시아어고 러시아어를 말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러시아어를 배우고 러시아어를 사용하지요. 부랴트 사람만 사는 부랴트 마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부랴트 말을 하더라도 텔레비전과 라디오는 러시아어로 나오고 모든 책과 글씨는 다 러시아어인데 어떻게 러시아어를 벗어나 살 수 있죠?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부랴트어 뉴스가 나오기는 하지요. 우리는 러시아 속의 부랴트사람이죠. 부랴트 말은 부랴트 마을이나 어른들이 자기들끼리 있을 때 그저 끼리끼리 하는 말이죠. 공공기관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문화시설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오직 러시아어뿐 이예요. 우리는 러시아어를 사용해야만 살아

---

11) 마을 내 생활언어가 부랴트어이며 러시아인의 시베리아 이주 이전부터 부랴트족이 살던 마을로 오늘날도 부랴트마을 내 부랴트족 비율이 약 95~100%이다. 순수 부랴트 마을은 부랴트 공화국 지방 마을의 비율 중 5%도 되지 않으며 인구규모는 100~500명 사이가 보통이다.

갈 수 있지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러시아어를 배우고 말해요. 러시아어를 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2006년 1월 울란우테에서 조릭투에바 리아나 미하일로브나와의 인터뷰 내용. 그녀는 1981년 출생으로 인터뷰 당시 울란우테시의 35번 학교에서 지리교사로 일하고 있다.)

구소련 붕괴 이전인 1990년 소련 정부는 ‘소련 제 민족어에 관한 법률’을 발효시켜 “소수민족들의 부흥, 발전 및 보존을 보장하고 민족어 사용을 규제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소련은 붕괴되었다. 소련 붕괴 이후 부랴트어 사용자의 감소에 따른 부랴트어 소멸의 위기를 느낀 부랴트 공화국은 다른 민족들에 비해 비교적 빨리 1992년 ‘제 민족어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였고 러시아연방이 1993년에 각 공화국들의 민족어를 국어로 채택할 수 있는 권리를 연방헌법에서 보장함에 따라 부랴트 공화국은 1994년 헌법에서 부랴트어와 러시아어를 국어로 채택하였다(성종환, 2003: 34).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서 ‘국어 구사 능력’이 전제가 되다 는 일부 소수민족 공화국의 헌법이 러시아연방 헌법 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비록 실효성을 상실하기는 했지만 부랴트공화국이 1994년 제정한 공화국 헌법은 “부랴트 공화국의 대통령은 부랴트어와 러시아어를 반드시 구사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조항은 부랴트어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1994년에 제정된 부랴트 공화국의 헌법 때문인지 러시아연방의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인 1992년부터 부랴트공화국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인인 파타포프는 국민들과 공식적인 대화를 할 때 부랴트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소비에트 연방과 러시아소비에트 공화국의 언어정책이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연방 또는 부랴트 공화국의 언어정책과 상반된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소비에트 시절의 언어정책은 러시아어 공용어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하며 러시아어 교육을 늘이고 민족어 교육시간을 줄임으로 부랴트족의 부랴트어 사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그렇다고 러시아연방

과 부랴트 공화국의 언어정책이 부랴트어 사용에 긍정적 변화를 준 것은 아니다. 공화국의 헌법에서 러시아어와 더불어 부랴트어를 공식 국어로 지정하고 언어 관련 법률을 통해 부랴트어 사용을 늘리고 부랴트어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 하지만 러시아연방과 부랴트공화국의 이러한 법적 조치는 부랴트어의 확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구소련시절부터 일관되게 지속된 러시아어 공용어 정책은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연방과 부랴트공화국의 러시아 공용어 정책으로 이어져 왔다. 1992년 부랴트공화국은 ‘재 민족어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였고, 1993년 러시아연방 헌법에서 보장하는 각 공화국의 민족어의 국어 채택 권리를 따라 1994년 부랴트어를 헌법상 부랴트공화국의 공용어로 채택하였다. 정부와 의회를 러시아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법적인 정책도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부랴트어 사용의 감소와는 반대로 부랴트족의 전통 종교였던 불교는 절이 새로 세워지면서 확산되고 있다(Minahan 2004: 321). 부랴트어의 악화로 불교가 점차 부랴트문화의 표지로서의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 2) 부랴트어 교육 정책

부랴트 공화국은 정규 학교에서 부랴트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부랴트어교육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0학년제로 이루어진 러시아의 학제를 따르고 있는 부랴트 공화국은 현재 전체학년에서 부랴트어를 가르치고 있지 않으며 일부 몇 개의 학년에서 부랴트어를 가르치고 있다. 이 부랴트어 수업의 내용과 교과서는 생활어로서 부랴트어를 배우기에 너무 적은 시간이 편성되어 있다. 외국어처럼 배우는 부랴트어를 일주일에 한 두 시간정도 2~3년 동안 배우는 정도다. 또 최근 몇 년 전까지는 부모의 허락만 받으면 부랴트어 수업을 듣지 않을 수 있어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부라트어 수업시간이 적기 때문 수업시간당 임금을 받는 언어교사들이 적은 임금을 받게 되고 따라서 이들은 부라트어를 가르치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 나서게 된다. 부라트족 아이들이 ‘말할 수 있는 부라트어’로 배우기 위해서는 부라트어 수업시간이 늘어나야 하고 교과서도 정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라트공화국은 교과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 수 없다거나 실제 사용자가 적어 부라트어 수업시간을 더 늘릴 수 없다는 논리로 부라트어 교육의 확대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런 부라트공화국의 교육정책으로 부라트족 아이들은 학교에서 제대로 된 부라트어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부라트족 아이들이 부라트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러시아어에 경도되면서 부라트어는 소멸의 길을 걷고 있다.

학교 지리교사와의 다음 인터뷰 내용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사자: 당신은 학교 다니실 때 부라트어를 배웠습니까?

제보자: 7학년 때까지 부라트어를 배웠어요. 그 이후로 배우지 않았어요.

조사자: 혹시 왜 7학년 이후에 부라트어를 배우지 않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보자: 교육과정을 없앤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학교에서 부라트어를 배울 때 부라트어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부라트어를 배울 때 부라트 사람만 부라트어 수업을 들어야 했고, 혼혈들은 수업을 들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했어요.

.....

조사자: 그러면 당신은 왜 부라트어 수업에 가지 않았나요?

제보자: 그냥 하기 싫었으니까요. 그리고 부라트 수업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잘 통제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정식교사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 시간 가르치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받을 수 있는 월급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누구도 부라트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일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사자: 그렇다면 부랴트어를 한주에 한 시간씩 한 학교에서 가르치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까요?

제보자: 한 달에 1500루블(5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조사자: 언제부터 학교에서 부랴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제보자: 5학년 때? 6학년, 7학년 때 ... 아 5학년 때네요. 10살 때 아니면 11살 때였으니까.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고요. 10살 때 즈음 같아요.

조사자: 그러면 몇 학년 때인가요?

제보자: 5학년 아니면 6학년 때이지요.

조사자: 그때도 한 학기에 한 시간을 배웠나요?

제보자: 네

조사자: 그때 학교에서 부랴트어를 배울 때 부랴트어를 잘 못하면 선생님 이 혼내기도 했나요?

제보자: 아니요.

조사자: 그럼 부랴트어 수업에서 부랴트어 시험을 보기도 했나요?

제보자: 시험은 없었어요. 시험은 하나도 없었고 그냥 배우는 그런 과목이 있었어요. 부랴트어 수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적이 없어요. 그냥 배우는 뭐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고학년이 되어서 과목들 시험을 볼 때는 이미 부랴트어 수업이 없었지요.

조사자: 학교에서 선생님이로 언제부터 일하고 있나요?

제보자: 2004년 10월부터 일하고 있어요.

조사자: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이 부랴트어 공부를 학교에서 하고 있나요?

제보자: 중간학년인 5, 6, 7학년이 부랴트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1주일에 2시간 정도 수업이 있는데 부랴트 사람 뿐 아니라 모두 부랴트어 수업을 들어야만 하고 지금은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부랴트어 공부를 하는 것보다 더 진지하게 공부하는 것 같아요. 부랴트어 시험이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에 다닐 때와 다르게 학생들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조사자: 그러면 학교에서 부랴트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부랴트어를 잘 말했나요?

제보자: 물론 그렇지 않지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말하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아이들이 영어를 학교에서 배우다고 해도 잘 말하지 못하지요. 부랴트어도 한두 시간에 연습 없이 공부로 하는 거니까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수업 때 배우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우 기초에 지나지 않아요. 수업과 상관없이 부랴트 말을 잘하는 아이들은 시골에서 살면서 시골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죠. 도시에 살면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부랴트 말을 할 기회가 없어요. 수업으로 배우기만하고 말할 기회도 없이 그냥 한두 시간 배운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조사자: 대학에서는 부랴트어를 배우나요?

제보자: 대학에서 배우기는 하는데 선택과목이죠. 부랴트어 수업이라기보다, 부랴트어 회화나 문법 공부보다 부랴트 문화, 부랴트 작가, 전통, 의상 등을 배우죠. 부랴트 방언이 여러 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방언의 차이, 각 지역의 문화차이들을 배우죠. 각 지역의 성격의 차이 등 그런 것을 배워요.

조사자: 그러면 부랴트어는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다인가요?

제보자: 네. 학교에서만 그렇게 배우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정확히 몇 년 동안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교육과정이 바뀌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조사자: 부랴트어 수업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보자: 지금 현재 학교에서 부랴트어를 공부하는 교과서가 있는데 이 교과서로는 말을 배울 수가 없어요. 마치 부랴트 아이들이 영어 같은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처럼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이런 교과서와 시스템으로는 아이들이 아무리 오래 동안 배워도 말을 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과서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게 문제죠.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결국 돈이 문제인 것 같아요.

(2006년 1월 울란우데에서 조릭투에바 리아나 미하일로브나와의 인터뷰 내용)

### 3) 압도적인 러시아인의 비율

러시아연방의 소수민족들은 대부분 21개 공화국과 10개 자치구 그리고 1개의 자치주에 밀집되어 있는데, 이러한 민족 자치단체의 존재여부는 소수민족들의 민족어의 발전과 기능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 소수민족 공화국내에서 소수민족의 도시와 지방의 분포 양상 및 해당공화국 인구 중 소수민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러시아 연방 내 21개 공화국 중 소수민족이 과반수를 상회하는 잉구쉬티야(잉귀쉬족 74.5%), 추바쉬야(추바쉬족 67.8%), 체첸니야(체첸족 66%), 투바(투바족 64.3%) 에서 민족어 보존이 비교적 잘 되어있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sup>12)</sup>

소수민족이 자치하는 해당 공화국의 인구구성비가 낮거나 소수민족

---

12) 성종환, 2003, 27-28pp.



이 다양한 지역에 산재해 있으면서 각 마을과 도시에서 러시아인들에 비해 소수를 면치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화국에서의 소수민족의 언어를 국어로 채택한다 하더라도 해당민족어가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사용되지 못하고, 따라서 민족어 자체의 보전과 민족어를 기반으로 하는 민족정체성 확립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부랴트공화국의 수도인 울란우데는 1688년 카자크가 설립한 월동기지 ‘우딘스키 집’으로 이후 러시아인들이 이주하면서 도시(베르흐네 우딘스크)로 발전(Терский 외, 2001: pp. 164-165)하여 정복자였던 러시아인들이 주로 살던 지역이었다. 19세기말 러시아정부는 적극적인 이주정책으로 러시아인들을 오늘날 부랴트공화국으로 이주시켰고 당시 이주한 러시아인들은 지방 행정구역의 중심지인 라이온<sup>13)</sup>의 중심 마을이나 비교적 농경과 목축이 용이한 지역에 마을을 세우고 살게 되었다.

19세기 후반 이후 러시아인들이 부랴트공화국의 지방으로 대량으로 이주하면서 부랴트족보다 더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부랴트족의 토지를 빼앗았다. 부랴트족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자신들의 조상들이 살던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러시아인들과 다른 생활영역을 구축하면서 서로 별 접촉 없이 거주하여 다수인 러시아인들의 언어에 쉽게 동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부랴트공화국 안에서 러시아인의 인구비율이 점점 커지고 러시아인과 부랴트인의 접촉이 커지면서 부랴트어 사용자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 이후에는 부랴트어 사용자가 더욱 크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1926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도시인구 50,400명이 거의 대부분 러시아인이었으며 이를 감안할 때 약 238,200명의 러시아인중 도시 러시아인 약 5만 명을 제외하면 지방의 러시아인은 약 188,200명으로 당시 부랴트족 총인구인 130,200명 보다 훨씬 인구가 많다. 부랴트 공화국

13) 우리나라의 “구 혹은 군”에 해당하는 행정단위이지만 부랴트공화국에서 라이온의 면적은 우리나라 “도” 정도의 크기이다.



〈표 1〉 부랴트공화국의 민족 별 인구 변화(출처 Терский 외 2001: 4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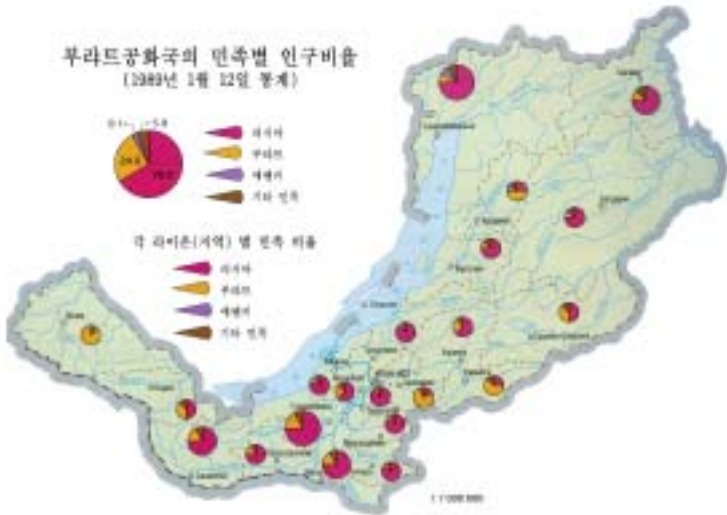
에서 러시아인의 인구는 1926년에서 1989년까지 약 3배 증가 하여 1989년에는 726,100명으로 전체인구의 69.9%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러시아인은 인구의 60%내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계속 정부, 의회, 대학, 사업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반면 부랴트인은 1926년 당시 130,200명으로 전체인구의 35.3%였으나 1989년까지 약 2배에 못 미치게 인구가 증가하여 249,500명으로 공화국 전체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1929년 이후 부랴트인 인구 비율은 1989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였다. 부랴트 공화국의 부랴트인 인구 비율은 1930년대 이후 계속 20%대로 러시아 연방 내에서 민족어를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는 다른 공화국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이다.

1996년 부랴트공화국 자체 인구조사에서 부랴트공화국 인구가 조금 증가하여 약 1,052,500명이 되었지만 부랴트공화국 내에서 부랴트족의 인구비율은 역시 약 24% 정도로 공화국 내 소수를 면치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비록 1994년 공화국 헌법을 통해 부랴트어를 러시아어와 동일하게 국어로 격상시켰지만 부랴트어가 사회전반에 확산되지 못하고 잘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인은 공화국 전체에서 인구비율이 높다. 도시지역인 울란우데(약 80%), 구시노아조르스크(75%), 시비로바이칼스크(75%) 뿐 아니라 지방 라이온의 대부분 지역에서도 부랴트족 비율을 압도하고 있다. 러시아인의 인구가 자카멘스크, 페트로팔로브카, 카흐타, 비추라, 카반스크, 타르바갈타이, 무하르쉬비리, 투룬타에바, 바르구진, 바그다린, 탁시모 같은 대부분 지역에서 75% 이상을 이볼긴스크, 호린스크 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크렌, 사스노보-아조르스크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도 50%를 차지하고 있다. 부랴트인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은 자이그라에바, 키진가, 구름칸, 오르리과 같은 극히 일부지역 뿐이다. 러시아인은 공화국 내에서 도시 뿐 아니라 각 라이온에서 다수를 차지함으로 자연스럽게 러시아어를 생활어로 사용하게 만들고 부랴트



〈표 2〉 부랴트공화국 지방 인구의 민족 별 비율(출처 Терский 외 2001: 461)

어가 생활어로 사용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비록 1994년 부랴트어가 부랴트공화국의 헌법에 의해 러시아어와 더불어 국어로 지정되었지만 부랴트인들이 공화국 내 대부분 지역에서 소수를 면치 못하면서 부랴트어 사용의 폭이 좁아졌고 부랴트어 소멸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 3) 부랴트어 사용자의 도시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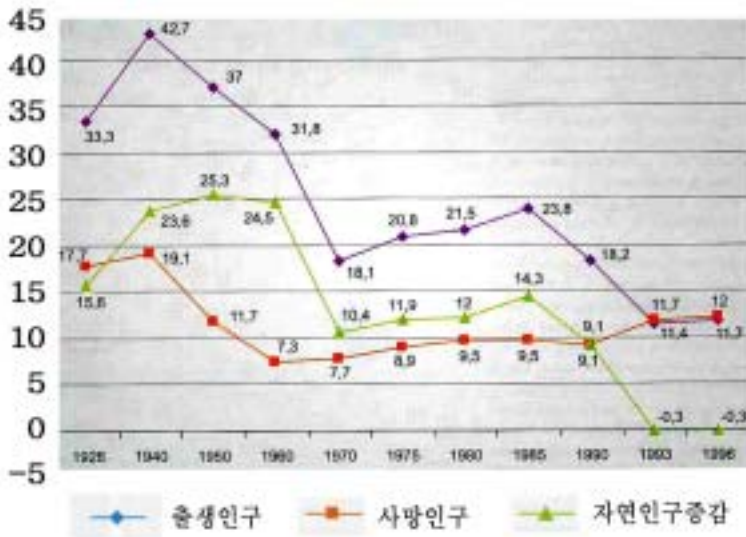
울란우데에서 공산주의 혁명 이후 운송장비, 농기계, 항공(헬기), 전기기기 산업이 지방과 차별을 두고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지방에서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공산주의 혁명 이후 공화국내 도시인구가 1989년 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표 3>은 1926년부터 1989년 까지 도시 인구의 꾸준한 증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표 4>에 따르면 부랴트공화국 전체에서 1926년부터 1990년까지 출산에 따른 인구의 증가가 있음



<표 3> 부랴트공화국 도시·지방인구 변화(출처 Терский 외 2001: 456)

에도 불구하고 지방(읍과 농촌 포함)의 인구는 1926년 이후 1970년까지 소폭으로 증가한 후 1979년까지 약 10%가 줄어들고 이후 소폭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1926년 대비 약 25%가 증가하여 별 차이가 없다. 반면 도시인구는 1926년 인구조사 이후 1989년까지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여 약 12배가 증가했다.

<표 4>에 따르면 부랴트공화국 내 1970년 이후 1985년 까지 출생 인가와 사망인구가 거의 평행선을 이루며 출생과 사망에 따른 자연증가 인구는 1년에 약 3~4천 명 정도로 10년 동안 약 3~4만 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1970년부터 1979년 사이 도시인구는 15만 명이나 늘어났으며 지방 인구는 오히려 약 6만 명이 줄어들었다. 이는 1970년부터 1979년 사이 출생과 사망에 따른 인구의 자연증가가 도시 인구에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지방인구의 도시유입이 도시인구의 꾸준한 인구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1929년 이후 부랴트공화국 전체인구가 지속적



<표 4> 부랴트공화국의 출생·사망 인구통계(출처 Терский П. А 외 2001, 457pp)

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표 4>를 통해 출생과 사망에 따른 자연적 인구증가로 볼 수 있으며, 공화국 내 도시인구의 증가가 1989년 까지 지속적인 이유는 공화국 전체 지역에서 증가한 인구가 도시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소련 내 다른 지역보다 부랴트공화국의 산업수준과 발전정도가 낙후된 점, 소련 당시 부랴트공화국의 인력수요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지 않은 점, 그리고 공화국 내 출생과 사망에 따른 자연인구증가와 부랴트공화국 전체인구증가가 같은 점을 감안한다면 도시인구증가가 부랴트공화국 외부로부터의 유입에 따른 인구증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구소련 당시 도시보다는 지방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가던 부랴트인들이 도시로 유입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1991년 이전 구소련 당시 지방의 부랴트인들은 집단농장(колхоз)과 국영농장(совхоз)에서 일을 하며 살았다. 그러나 1991년에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은 해체되었고 소유에 따른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자기 소유의 가족이 없는 가족들은 일거리도 없었기 때문에 살아갈 방법이 없었다. 이들은 일자리 없는 지방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기를 원했지만 가족이 모두 도시로 이주할 경우 거주지를 구할 수 없고 한사람의 일당으로 온 가족이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일 할 수 있는 젊은 남자들이 주로 도시로 이주를 했다. 지방에서 부랴트어를 사용하던 부랴트 이주민들은 도시에 와서 러시아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해야 했다. 도시생활에 적응한 이주민들은 지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도시에 정착했다. 이들은 부랴트어 사용을 그만두고 러시아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두 러시아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1991년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경제적 효율성이 없는 지방의 모든 국영산업들을 폐쇄하였고 부랴트 공화국의 각 라이온에서도 1991년 이후 지방의 공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 그나마 각 라이온에 있던

일자리는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자기 가족이 충분히 없는 사람들 중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대부분 울란우데로 이주하였고 일부는 이르쿠츠크나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 등 대도시로 그리고 몽골·한국·일본 등 다른 국가로 이주하였다.

부랴트 공화국을 떠나 다른 도시로 이주한 부랴트인들은 직장 뿐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 가족 내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여 자녀들이 부랴트어를 배울 수 없게 되었다. 이주 전 부랴트인들은 토착마을에서 부랴트방언을 어느 정도 사용하였으나 도시 이주 후 도시노동자가 되면서 지연적 공통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과 직장에서 러시아어로 대화를 하게 되면서 부랴트어 사용이 줄게 되었고, 퇴근 이후에도 지연적 공통성이 없는 사람들과 거주하게 되면서 더욱 부랴트어를 사용할 기회가 줄어들게 되었다.

부랴트인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러시아말을 쓰게 되는 상황을 다음 인터뷰가 잘 보여주고 있다.

조사자: 시골에서는 부랴트 사람들이 부랴트어를 사용하나요?

제보자: 네, 시골에 사는 부랴트 사람들은 대부분 부랴트어를 사용하고 러시아 사람은 러시아말을 하지요. 그런데 희귀하지만 한명이나 두 명 정도의 러시아 사람이 부랴트 마을에 살면 부랴트 말을 하기도 해요.

조사자: 그러면 부랴트 마을에 사는 부랴트 인들은 러시아어를 할 줄 아나요?

제보자: 네, 러시아어를 하지만 러시아어를 할 때 문법이 엉망이기도 하죠.  
.....

조사자: 지방에서 일을 찾아 도시로 온 사람들의 연령층은 대체로 어땠나요?

제보자: 몇 살쯤이요? 나이는 알 수 없고 힘든 일 할 수 있는 젊은 남자들이 많이 도시로 몰려들었어요. 20세 이상에서 40세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

조사자: 부랴트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했나요?

제보자: 러시아인들도 많이 왔고 부랴트 사람들도 도시로 많이 왔어요.  
.....

조사자: 그럼 지방에서 부랴트말을 하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해서 부랴트

말을 하나요?

제보자: 도시에 왔을 때요? 러시아어로 말을 하죠. 제가 한국에 가서 러시아말로 하면 누가 저를 이해하겠어요? 모든 기관에서 러시아어로 하고, 모든 도시에서 러시아어를 해야 말이 통하니까 러시아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도시 직장에서 러시아사람과 대화할 일이 많아지면서 러시아사람과 대화할 때는 러시아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물론 부랴트 사람과 말할 때는 서로 부랴트 말로 할 수 있겠지만 출신이 다르면 서로 방언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서 러시아어를 쓰죠. 그리고 러시아인이 대다수인 도시이니까 러시아어를 쓰는 거죠. 직장에서도 러시아어를 쓰죠. 도시에서는 모두들 러시아어를 해요. 그리고 도시에는 러시아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하지 않고는 살수가 없죠.

(지진스키 라이온 알작 마을에서 2005년 8월 오소롭 안드레이와 인터뷰한 내용. 오소롭 안드레이는 1960년 지진스키라이온의 알작마을을 출생자로 알 마을에서 살다가 울란우데에서 대학교를 다녔고 유학 후 귀향하였다.)

농촌에서 울란우데 도시로 이주한 청년에게서 같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구름간스키 라이온에서 울란우데로 이주한 오치롭 니마와의 2006년 1월 인터뷰 내용이다.

조사자: 여기 울란우데로 오기 전에 구름간스키 라이온에 살았을 때 부랴트어를 사용했나요?

조사자: 아, 구름간에 살았을 때 친한 부랴트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는 부랴트말로 했지만 모르는 사람을 만나거나 러시아사람들이 구름간에 많이 사니까 기본적으로 러시아말을 하게 되죠.

조사자: 그럼 이곳 울란우데에서는 부랴트 말과 러시아말 중 어떤 말을 주로 사용하나요?

제보자: 그걸 말이라고 해요? 당연히 러시아말을 쓰는 거죠. 고향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게 될 때 말고는 온통 러시아말만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고향에서 같이 일하러 온 친구들과 함께 아파트를 빌려 살고 있는데요. 집에 가면 그래도 부랴트말이랑 러시아말이랑 섞어서 할 수 있는데 밖에 나가면 온통 러시아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다 러시아말로 써 있으니까 러시아어를 사용하죠. 지방에서는 그래도 직장에 구름간부랴트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부랴트말로 할 수 있지만 울란우데에서 일하려면 부랴트말로 통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니까 러시아어만 사용하는 거죠. 암튼 시골에 너무 일이 없어서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오려고 해요. 구름간에서 한 달 내내 일하고 500루블이나 1000루블도 못 받는 곳이 많고 그런 일자리조차도 없는 형편이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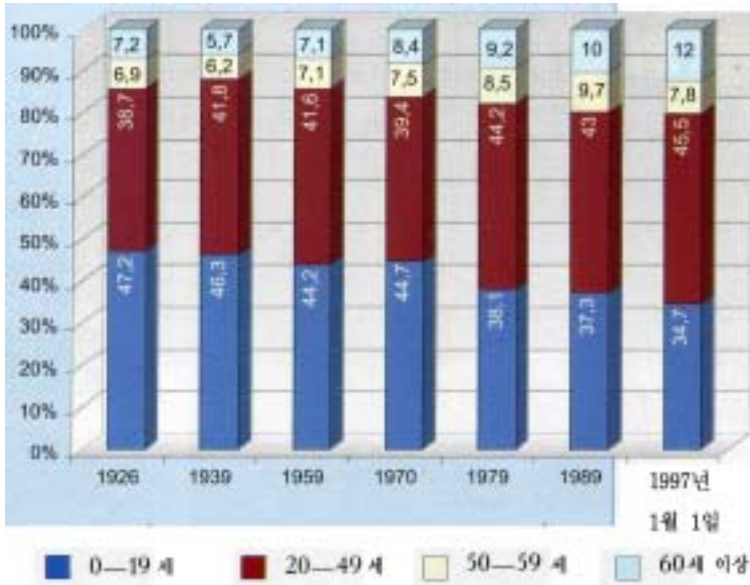


#### 4) 가족 내 러시아어 사용증가

부랴트인이 사는 지역을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도시, 러시아 마을 그리고 부랴트 마을이다. 도시는 러시아인이 대다수인 지역이며 러시아 마을은 지방이지만 러시아인이 대다수인 마을이다. 마지막으로 부랴트 마을은 부랴트 사람이 대다수인 마을이다. 부랴트마을에서는 생활어로 부랴트어를 사용하지만 부랴트마을은 현재 부랴트공화국 내 극히 소수이고 도시와 러시아마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생활어로 러시아어를 사용한다. 만일 도시와 러시아 마을에 사는 부랴트 가족이 가족 안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게 되면 자녀들은 부랴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하나도 없다. 가족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부랴트어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두 시간 정도 부랴트어를 배운다고 부랴트어를 구사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와 러시아마을에서 부랴트 가족이 가족 안에서 부랴트어를 사용하는가는 부랴트어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처음 말을 배우는 아이들이 가족 내에서 부랴트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부랴트어를 배울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부랴트어 구사가 불가능해졌다. 도시와 러시아 마을이 대부분인 부랴트 공화국에서 자라나는 부랴트 아이들이 부랴트어를 구사하지 못하면서 부랴트어가 전수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표 4>에 따르면 부랴트공화국의 인구는 1970년대까지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1970년 이후 출생인구가 크게 줄어들면서 출생과 사망에 따른 인구의 자연 증가가 줄어들었다. 부랴트공화국내 사망인구는 꾸준히 작은 폭으로 늘고 있으나 출생인구는 소폭증가 후 1985년 이후 크게 감소하였다. 부랴트공화국 내 러시아인과 부랴트인의 인구비율을 고려할 때 부랴트인 사망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출생인구는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부랴트어를 주로 사용하는 노인인구



〈표 5〉 부랴트공화국의 연령별 인구비율(출처 Терский 외, 2001: 461)

의 감소와 앞으로 부랴트어를 사용자가 될 부랴트출생인구의 감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

197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0~19세의 비율이 44.7%였으나 1997년 인구조사는 34.7%로 10%가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출생인구와 출생률의 감소에 따라 <표 6>은 1970년 이후 부랴트공화국 내 20세 미만 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의 꾸준한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표 5>와 <표 6>은 부랴트공화국의 출생률 감소로 부랴트공화국 인구의 24%를 차지 하는 부랴트족의 출생률도 줄어들었음을 말해준다. 이는 부랴트어를 구 사하는 약 20~25%의 부랴트어 구사자 중 대부분인 중년 이상의 부랴트 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사라지고 앞으로 부랴트어를 구사할 가 능성이 있는 부랴트족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것이 부랴트어 소멸위기 원인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가족 내에서 부랴트어 사용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를 다음 인터뷰가 잘 보여주고 있다.

조사자: 부랴트 사람들은 집에서 가족끼리 어떤 말로 대화를 하나요?

제보자: 일반적으로 러시아어로 대화를 하죠. 도시나 러시아 마을에서는 거의 일반적이죠. 마르타 고모는 부랴트 말을 할 줄 알지만 딸과 대화를 할 때 항상 러시아어로 대화를 하죠. 가족끼리 부랴트말로 대화를 잘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다들 가족끼리 러시아어로 대화를 하죠. 밖에서 다들 러시아어를 사용하는데 집에 들어와서 부랴트어로 대화를 할 이유가 없죠. 집에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쓸모없다고도 생각하는 거죠.

조사자: 필요 없다고요?

제보자: 그럼요. 필요 없는 거죠. 집밖에서는 다들 러시아어를 쓰고, 억양과 발음이 정확해야 하는데 집에서 부랴트말을 하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집밖에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꼭 집에서 부랴트 말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누구도 부랴트어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러시아말 잘 해서 직장도 찾아야 하고 좋은 대학도 가야하고 살아야 하는데 무슨 부랴트말이 필요한 거죠?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해요. 근데 부랴트말 한다고 누가 돈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생활에 필요한 러시아어를 집에서나 밖에서나 하는 거고 아이들은 부랴트어에 노출되지 않게 되니까 부랴트어를 못하는 거죠. 부랴트 사람만 사는 부랴트마을에서도 집에서는 다들 러시아어를 해요. 부랴트 마을에서 그렇지 않은 집들도 있지만 대체로 다 러시아어를 하는 거죠. 아이들은 태어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부랴트어를 제대로 사용하고 제대로 배울 만한 곳이 없어요. 집에서나 부랴트말을 해야 하는데 집에서도 사용 안하는 부랴트말을 어디 가서 배울 수 있겠어요? 학교요? 그냥 한 두 시간 외국어 배우는 것처럼 배우는 거죠.

.....

조사자: 그러면 이주와 상관없이 도시나 러시아 마을에 사는 부랴트 아이들은 집에서 부랴트 말을 하지 않나요?

제보자: 도시나 러시아마을에서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부모님이 어떤 말로 대화를 하는 가 이지요. 부랴트 말을 가정에서 사용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적어요. 부모님이 아이들과 부랴트어로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랴트어를 배우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 집 경우를 보면 부모님이 모두 시골 분이신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키진가 출신이죠, 어머니와 아버지는 항상 러시아어 저희들과 대화를 하셨고, 어머니는 가끔 부랴트어로 대화를 하셨던

하지만 우리가 말을 배울 정도로 하신 건 아니죠. 러시아어를 배우는 것이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하신 거죠. 러시아어를 못 배우면 살수가 없죠. 집에서 부랴트 말을 주로 하면 러시아어 배우는데 도움이 안돼요. 학생들이 시골에서 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도시에오면 러시아어를 이상하게 말해요. 문법도 하나도 맞지 않고 억양도 다 틀리고 그렇죠.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은 놀림감이요 정말 웃겨요. 이러한 학생들 중에 몇 년 동안 도시에 살면서 러시아어를 하면 억양과 문법이 크게 틀리지 않아요. 시골에서 와서 도시에 대학을 다닌 부랴트 사람들은 몇 년이 지나면 러시아를 잘하는데 시골에서 왔지만 도시에서 일만하는 사람들은 러시아어를 잘 못해요. 알아듣고 말은 하는데 말하는 것을 보면 정말 웃겨요.

조사자: 그렇지만 어머니께서 자녀들과 함께 조금 부랴트어로 하셨는데 당신은 왜 부랴트 말을 못하시는 거죠?

제보자: 알아듣기는 한데 말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알아듣는 것은 조금 알아듣는 것 같아요.

(2006년 2월 울란우데에서 조릭투에바 류보비 미하일로브나와의 인터뷰 내용. 조릭투에바 류보비 미하일로브나는 1980년 울란우데 출생이며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지방인 키진긴스키 라이온 출신이다.)

## 5) 부랴트 공화국 정부와 의회의 소극적 태도

부랴트공화국 정부와 의회는 러시아인이 주도하고 있다. 부랴트인 정당인 민족통일당의 지도자인 블라디미르 하무타예프는 이르쿠츠크에서 교편을 잡던 중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약간의 소수민족 우대 정책이었다. 그는 구체적으로 조세와 재정에 대한 통제권을 넘겨받는 것, 공화국 의회와 모스크바 의회에 부랴트인 대표자 몫을 더 많이 할당해 줄 것, 그리고 부랴트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요구했었다(레이드 2003: 103-131). 조세와 재정에 대한 통제권을 넘겨받는 것과 의회에 부랴트족 몫이 더 많이 할당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랴트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랴트공화국 의회는 이에 큰 중점을 두지 않는다.

사실 부랴트공화국 의회에 상당수의 부랴트인이 진출해 있지만 소수이다. 또한 부랴트 사람들은 이들이 대부분 사리사육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전직관료 출신이라고 말한다. 부랴트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려 했던 하무타예프는 이런 그의 동료들의 협조가 없어 부랴트어 교육 강화가 어렵다고 말한다. 현재 부랴트공화국 의회에 있는 부랴트인들은 엄격히 말해 ‘샌드위치 시스템(조직의 수뇌를 러시아인이 맡으면 2인자 자리는 부랴트인이 맡는 것)’의 수혜자이다. 이들이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의회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전직관료로 일했던 경험으로 지금은 의회에서 일하며 현직대통령인 파타포프에 대한 비판은 삼가고 추종하는 경향이 강해 현 정부의 빈약한 부랴트어 교육정책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부랴트어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부랴트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교과서가 필요하다. 한 연구자에 따르면 부랴트어 교육을 정비하고 이런 교과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예산이 400,000 루블(약 15,000달러) 정도라 한다. 부랴트공화국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의 80% 이상이 러시아연방 중앙정부에서 조달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정부는 부랴트어를 살리기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 투자할 여유가 없는 편이다. 부족한 국가의 재정이지만 민족어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확보하고 재정 사용에 관한 정책결정에 부랴트 공화국 의회가 앞장서야 하지만 부랴트족 의원조차 자기민족 언어에 대해 관심이 없는 편이다.

공화국 정부나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러시아인들에게 사라져 가는 부랴트어는 민족적으로도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부랴트민족주의를 부추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부랴트어를 살리려는 언어 관련 법률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부랴트어 사용자 감소에 따라 부랴트어 소멸 위기에 처했지만 러시아 중앙정부와의 관계, 공화국내 민족구성 비율, 예산 등의 이유로 의회와 정부에서 민족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 부랴트어 소멸 위기의 한 원인이다.

#### 4. 부랴트어 소멸위기와 민족정체성

##### 1) 젊은층에 있어서 민족정체성과 부랴트어 소멸위기

소련 시절 이후 부랴트공화국의 재정독립 비율은 매우 낮았고 현재 부랴트공화국의 재정독립비율도 약 20%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랴트공화국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으면 국가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받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을 지원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부랴트족은 자기 민족의 언어를 살리는 것보다 중앙으로부터 소외받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보자: 부랴트공화국에서 교사들이나 공무원들의 월급을 약 20%도 부랴트공화국이 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이것들을 다 지원해주지요. 연방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부랴트공화국이 유지 될 수가 없어요. 교사들이나 공무원들 같은 사람 뿐 아니라 공화국의 재정독립이 20%도 안 될 겁니다. 중앙으로부터 재정을 받아오는 것이 중요하고 부랴트어에 신경 쓰는 것보다 중앙에 잘 보이는 것 중요하죠. 매년 초 러시아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부랴트공화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가 그렇지 않은가가 부랴트 사람들의 희망을 결정하죠. 부랴트공화국에 관한 이야기가 없으면 동 시베리아 발전에 관한 이야기라도 어떻게든 듣고 싶어 하죠.

(조릭투에바 리아나 미하일로브나와의 인터뷰 내용)

부랴트인들은 부랴트공화국의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눈 밖에 나지 않고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 자신들의 언어를 살리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랴트어가 소멸위기에 처했지만 부랴트어를 살리는 행동이 각 민족 자치지역을 통합하는 푸틴정부의 정책과 어긋날 수 있고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눈 밖에 날 수 있기 때문에 부랴트어를 살리는 것이 시급하지 않다는 것이 많은 부랴트인들의 생각이다.

더구나 부랴트어는 시골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낙인 찍혀 있고 러시아어는 문명적인 언어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부랴트어가 낙후된 시골에서 주로 사용되고 러시아어가 도시, 정부, 직장에서 사용되고 있어 이러한 차별적 인식이 일반화되어 부랴트사람들조차 부랴트언어 사용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조사자: 아버지께서 부랴트어를 알고 계시지만 항상 당신과 러시아어로 대화를 하신 이유가 있나요?

제보자: 아버지는 지식인이었죠. 그래서 우리들과 항상 러시아어로 대화했어요. 아버지가 부랴트어를 알았는데 우리와는 항상 러시아어로 대화를 하니까 우리가 부랴트어를 모르는 거죠.

조사자: 지식인이라니요 지식인들은 부랴트어를 안 하나요?

제보자: 지식인들은 모두 러시아어로 말하지요 그것도 깨끗한 러시아어로. 부랴트어를 하는 사람들을 비문법적인 사람이나 비현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관광회사에 취직하려고 인터뷰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제가 고객과 함께 다니면서 가이드를 해야 하는데 제 러시아어 발음에 부랴트식 억양이 있으면 어떤 회사에서도 저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어디서 시골 사람이 왔다고 생각할 겁니다. 누군가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 부랴트어를 사용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를 시골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도시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인간관계가 넓어지는데 부랴트 말을 하고 다니면 시골사람이라고 취급하고 비현대적인 사람이라 취급하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아마도 부랴트 말하고 다니는 친구를 별로 사귀고 싶지 않을 거예요. 물론 사람을 사귀는데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지만 처음에 첫인상은 아주 안 좋을 거라는 거죠.

조사자: 부랴트 사람은 부랴트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보자: 젊은 사람들은 부랴트어가 어디에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부랴트어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일자리를 구하는데 부랴트어가 필요한데는 부랴트전통극장 같은 문화시설인데 그런 곳에 일자리는 한정되어있고 또 돈도 조금주지요. 젊은 부랴트인들은 부랴트어가 어디에도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부랴트어를 잘하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아요.

조사자: 부랴트 젊은이들이 왜 부랴트어를 안 좋아하죠?

제보자: 그들은 부랴트어가 도움도 안 되는 옛날 것이라 생각하죠. 말을 배울게 있다면 영어나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같은 쓸데 있는 말을 배워야 된다

고 생각해요. 젊은 부랴트 사람들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는데 먹고 사는 데 도움도 안 되는 말 배워서 어디에 써 먹겠어요. 부랴트어는 외국어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존을 위해 써야 하는 필수언어도 아니지요. 그냥 뭐 할 줄 알면 좋고 아니면 아닌 그런 언어언어죠.

조사자: 젊은 부랴트인들 중에 부랴트어를 잘하는 것에 대해 다른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보자: 영어를 잘하면 부러움이 대상이 되겠지만 부랴트어를 잘한다고 해서 부러울 게 하나도 없죠. 그저 그냥 뭐 별려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하죠. 어른들이야 훌륭한 젊은이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저 잘해도 도움 될 곳 하나 없다고 생각하죠.

부랴트어가 소멸위기에 처해있다는 상황에 대해 모든 부랴트인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젊은이들은 자기가 러시아인인지 부랴트족인지 확실히 구분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부랴트어를 구사 할 줄 모르는 것과 자신들이 부랴트족이라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시골출신의 언어로 간주하며 사용을 회피하고 있다. 더구나 갈수록 취직과 사회생활에 별 필요가 없는 부랴트어를 배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젊은이들이 부랴트어를 모르기 때문에 겪는 불편함은 많지 않다. 볼드람(부랴트국립전통극장)에서 연극 대사를 못 알아듣는 정도이며 그런 연극을 보거나 그런 곳에 취직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부랴트어 구사 능력이 취직에 영향을 주는 직장은 부랴트공화국에서 1~2개에 불과하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정부의 일자리는 극소수이다.

젊은이들은 부랴트어 사용이 시골출신으로 보이게 하여 오히려 사회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랴트어를 잘 구사하는 부랴트인이 러시아어를 사용할 때 부랴트어 억양이 드러나면 잘 교육받지 못한 교양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직장 내에서 부랴트어를 구사하는 것이 동료들에게 드러날 때 자신을 비현대적인 저급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취급된다고 생각한다. 부랴트어 구사가 부랴트족 정체성과 별 상관이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젊은 부랴트인들의 생각은 부랴트어 소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2) 장년층에 있어서 민족정체성과 부랴트어 소멸위기

반면 장년층 특히 60~70대 이상의 부랴트인 대부분은 부랴트어를 구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랴트족이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부랴트어 구사가 부랴트족의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노인들은 젊은 세대의 부랴트어 사용자가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부랴트어소멸위기의 원인을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환경으로 알고 있지만 부랴트어 소멸위기가 부랴트족의 전통과 문화 위기를 불러 올 것이라 생각한다. 이미 수많은 부랴트족이 부랴트어를 모르기 때문에 부랴트어를 못하는 사람은 부랴트족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지만 부랴트족 노인들은 부랴트어 구사가 부랴트족의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젊은층도 노년층이 자신들과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조사자: 나이든 부랴트사람들은 젊은이들이 부랴트어를 할 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보자: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부랴트어가 이렇게 대접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젊은이들이 자기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다 잃어버리고 찾지도 않는다고 이야기 하죠. 관심도 없고 전통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죠. 어떤 분들은 부랴트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부랴트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죠. 근데 그렇다고 생각하게 되면 부랴트사람은 몇 안 되는 거죠. 부랴트 친척 아이들이 할아버지같은 어른들에게 다가가면 어른들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부리야드르 메드느쉬(Бурядаар мэднэши)?” 라고 물어보는데 부랴트 말로 “부랴트어를 아니?”라는 뜻이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일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 못 알아들으면 나이 드신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죠. 러시아 사람이랑 똑 같다고 하세요.

즉, 젊은이들은 같이 러시아어를 사용해도 얼굴이 달라 러시아인으

로부터 자신을 부랴트족으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으며 부랴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러나 노인들은 젊은이들이 부랴트어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랴트족이 아니라며 부랴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것이 부랴트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라고까지 생각한다.

### 3) 혼혈인, 부랴트어, 그리고 민족정체성

17세기 러시아인 침략 이후 러시아인과 부랴트인 사이에서 나타난 사람들을 ‘혼혈인’이라 구분했다. 부랴트 사회에서 혼혈은 러시아인이 될 수 없지만 경우에 따라 부랴트인으로 인정됐다. 17세기 러시아인들의 침략 이전에는 혈통이 부랴트족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었으나 러시아인들과 혼혈이 생기면서 일부 혼혈인들이 부랴트족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었던 것이다. 혼혈들이 부랴트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부랴트어 구사능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로 혼혈인이 드러나는 혼혈인 부랴트족은 부랴트어를 구사해야만 부랴트족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부랴트족사회에서 언제부터인가 부랴트어를 구사할 수 없는 혈통 상 부랴트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부랴트어 구사능력과 상관없이 부랴트족은 외모로 부랴트족 인정을 받게 되었고 혼혈부랴트인들이 부랴트족으로 인정받는 방식도 달라졌다. 여기에는 1989년 이후 실시된 러시아 여권법이 큰 영향을 주었다.

1989년 구소련 붕괴 전 혼혈인이 부랴트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랴트어를 구사해야 하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 소련당시 여권 없는 사회활동은 상상할 수도 없었고 누구든지 만 16세가 된 소련인은 여권을 만들어야 했다. 부랴트족 역시 소련의 시민으로 만 16세가 되면 여권을 만들어야 했고 여권을 만들 때 자신이 어떤 민족인지 표기해야만

했다. 그러나 혈통 상 부랴트족은 외모로 혼혈이나 러시아인과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여권을 만들 때 부랴트어 구사능력과 상관없이 부랴트족으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외모 상 혼혈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람들 역시 자기 스스로 부랴트족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여권 상 민족을 부랴트족으로 택하였는데 이 때 부랴트어 구사 능력이 부랴트민족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민족표기를 할 때 우물쭈물하는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가진 혼혈인들 중 부랴트어를 할 줄 모르는 모든 혼혈인들을 모두 러시아인으로 표기하게 했던 것이다. 반면 혼혈인 중 부랴트족으로 선택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부랴트어를 구사할 수 있는가를 적어도 여권을 신청 받는 행정관리 앞에서 표현해야 했다. 공식적인 언어구사 검사는 아니었지만 부랴트어 구사능력을 시험함으로써 혼혈인 중 부랴트족을 구분하였던 것이다.

여권에 표기된 민족명은 자신이 어떤 민족인가를 늘 확인 시켜줌으로 민족정체성 확립에 강한 영향을 주었다. 부랴트사회는 혼혈인 일부를 부랴트족 범위 안에 포함하였지만 혼혈인에 대해서는 부랴트어 구사능력을 기준으로 삼았다. 1989년 이후 역시 부랴트 사회에서는 외모로 부랴트인임이 증명되는 경우 부랴트어를 구사할 줄 아는가와 상관없이 부랴트족으로 인정된다. 이것이 혼혈인 중 부랴트족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적용되었다. 외모로 혼혈이 표현되는 경우도 자라나는 마을이 부랴트마을이거나 대부분 친족이 부랴트족이면 부랴트어 구사능력과 상관없이 혼혈 스스로 자신을 부랴트족이라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도 혼혈인을 부랴트족으로 인정 해주는 변화가 1989년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1989년 이후 자신을 부랴트족이라고 생각하는 혼혈인들은 ‘자신이 부랴트어를 구사할 줄 하는가?’와 상관없이 자신을 부랴트족이라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는 소련시절의 여권정책과 러시아의 여권정책 변화와 혈통 상 부랴트족의 부랴트어 구사자가 급격히 감소하여 부랴트족 집단 내에서 언어가 민족정체성의 중요기준이 되지 못하면서 혼혈인들의 부

랴트어 사용을 부랴트족 인정의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것이다.  
혼혈인들의 부랴트인 정체성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알 수 있다.

조사자: 당신은 부랴트인인가요?

제보자: 저는 부랴트인입니다.

조사자: 죄송합니다만 제가 볼 때 혼혈인것 같은데요.

제보자: 제 외할아버지를 모르는데 아마도 외할아버지가 러시아인 아니면 아르메니아인 같아요. 그래도 저는 부랴트인이지요.

조사자: 외할아버지가 부랴트인이 아니라면 다른 민족의 피가 섞인 혼혈인이 어떻게 부랴트인일 수 있지요?

제보자: 그렇게 생각하면 제 어머니는 반반의 혼혈인이고 저 역시 혼혈인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머니는 부랴트 마을에서 태어나 부랴트어를 유창하게 하시고 자신이 부랴트사람이라 생각하시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 자신도 그렇고 아무도 어머니를 혼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 역시 제가 부랴트사람인 이유는 제 자신이 부랴트 사람이라 생각하고 모두 저를 부랴트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여권(러시아의 신분증)에 민족을 표기하지 않아요. 소련 때는 여권을 만들 때 민족을 표기해야 했는데 그 때는 민족을 표기할 때 얼굴이 혼혈인 것이 보이면 부랴트 말을 할 줄 아는가를 관리가 보고 정해줬다는 거예요. 아마도 민족 표기를 하는데 우물쭈물하는 혼혈인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죠. 물론 얼굴이 부랴트 사람이면 부랴트 말 할 줄 아는 것과 상관없이 부랴트사람이 되는 거지요. 혼혈들이 와서 민족표기에 어쩔 줄 모르면 부랴트 말 할 줄 아는 가 못하는가를 보고 관리가 알아서 표기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누구인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 4) 러시아인, 부랴트인, 그리고 민족정체성

17세기 이후 약 330여 년 간 러시아인들과 함께 살아온 부랴트인들은 이제 러시아의 국민으로 러시아어를 부랴트어보다 더 많은 공간에서 사용하고 부랴트어를 구사할 줄 아는 부랴트인보다 러시아어만 구사할 줄 아는 부랴트들이 훨씬 많을 정도로 러시아에 동화되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동화되었고 현재 러시아인들이 부랴트인들을 법적 사회적으

로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부랴트인들은 공개적으로 차별을 당하지도 않고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지도 않는다. 지난 330여 년 동안 부랴트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것에 대해 정립되지 않은 서운한 감정이 남아있으나 절대 집단적으로 감정을 표출하거나 저항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부랴트인들 중 일부(주로 기성세대)는 부랴트족이 러시아인의 정책에 의해 점차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있으며 부랴트공화국이 중앙정부의 일반 주와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에 제보자는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라는 극단적 표현을 했다. 젊은이들이 부랴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부랴트어가 소멸되고 부랴트공화국도 다른 주와 통합되면서 부랴트족의 권리는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고 부랴트족 후손들이 살아갈 자리가 없을 것이라 이야기 한다.

부랴트족 청소년들은 부랴트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들은 부랴트어 사용의 필요성과 부랴트어 소멸 위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학교에서나 방과 후 동년배들과 어울릴 때 부랴트족끼리만 어울리면서 자신이 부랴트족임을 재확인한다. 러시아인 청소년들 역시 러시아인들끼리 어울리는데 양쪽 집단 모두 러시아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놀이문화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에 러시아인과 자신들을 구분한다. 부랴트족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부랴트어를 구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부랴트족으로 생각하고 러시아인과 구분한다.

부랴트공화국에 있는 개신교회에서도 역시 부랴트족은 러시아인들과 자신들을 구분하고 있다. 교회 내 목사가 외국인일 경우 문제가 나타나지 않지만 외국목사가 현지인들에게 교회를 이양할 때 러시아인이 목사가 되면 문제가 생길 때 마다 부랴트인들은 러시아인 목사가 부랴트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러시아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러시아인과 부랴트인이 다르다는 것과 자신들이 부랴트인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부랴트족들을 배려하기 위해 부랴

트족 목사가 부랴트어로 설교하는 시간을 만들었으나 정작 부랴트인들이 부랴트어를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이 생기기도 했다.

여러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부랴트족은 자신들을 러시아인과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인들에게 표면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있지만 330여 년 간 러시아인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받은 차별로 인해 정리되지 않은 서운한 감정이 남아있고 러시아인들은 부랴트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고 있다. 부랴트족 기성세대들이 비록 부랴트어 사용자 감소에 따른 부랴트어 소멸위기에 문제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점차 부랴트어를 구사하는 것과 부랴트족의 정체성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며 부랴트어 사용자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부랴트족 정체성에서 부랴트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혈통과 외모를 중요시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랴트어 사용과 관련 없이 러시아인과 다르다는 민족정체성은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다음 인터뷰도 잘 보여주고 있다.

조사자: 러시아 안의 공화국들과 자치구들이 일반 주들과 통합된다는 소식을 들었나요?

제보자: 그런 이야기가 있나요?

조사자: 아직 못 들으셨군요. 각 주와 주변의 자치지역들이 통합된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뭐 아마도 이르쿠츠크주와 우쓰찌오르딘스키 자치구가 통합될 것 같고, 부랴트공화국도 치타주나 이르쿠츠크주와 함께 통합 될 가능성이 있죠. 연방 상 하 의회에서 결의가 되었고, 푸틴도 결정을 곧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보자: 뭐라고요? 그것이 사실인가요? 우리보고 다 죽으라는 이야기 인가요? 러시아인들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군요. 우리를 다 몰아내고 이제 여기에서까지 우리를 몰아내려고 하는군요. 우리를 다 죽이려는 것 이 확실해요.

(지진스키라이온 알작 마을에서 오소로봐 스비에틀라나와의 인터뷰내용)

## 5. 나가면서

부랴트어는 4개 방언 집단, 20여 개의 방언으로 이루어진 풍부한 언어이고 일부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카자흐와 러시아의 침략에 저항하고 러시아에 편입되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서로 같은 집단이라는 부랴트족이라는 민족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부랴트어 사용자가 감소함에 따라 소멸위기 상태에 처해 있다. 부랴트공화국에서 부랴트어 소멸 위기에 원인은 러시아어 공용어 정책, 부랴트어 교육정책, 낮은 부랴트족 인구비율, 부랴트어 사용자의 도시이주, 가족 내 러시아어 사용증가, 부랴트공화국 정부와 의회의 태도, 부랴트어에 대한 낙인, 직장 의 러시아어 사용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랴트공화국에서 부랴트어의 소멸위기에 대해 부랴트족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성세대들은 부랴트어를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랴트어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이 부랴트족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랴트어 사용이 부랴트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반면 젊은이들은 부랴트어가 중요하지도 않으며 부랴트어를 사용하는 것이 부랴트족인 것과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부랴트어 사용자 감소에 따라 부랴트어 소멸위기를 맞은 부랴트인들은 부랴트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던 부랴트어 사용이 1989년 이후로 부랴트족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다. 부랴트어 사용이 부랴트족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기준이었지만, 부랴트어 사용자가 급격하게 감소하자 부랴트족 민족정체성의 기준에서 언어의 중요성이 크게 약화되고 이제 혈통과 외모를 주요 기준으로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부랴트족 출생률은 계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자연인구 증가 없이 정체상태에 빠졌으며 젊은이들과 달리 부랴트어 사용과 전통을 강조하는 기성세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줄어들어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경우 부랴트어 사용이 계속 감소되어 소수만 사용하다가 결국 소수의 학자나

도서관만이 부랴트어를 보존하는 시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기성세대나 젊은 부랴트인 모두 자신들을 러시아인과 크게 다른 부랴트인으로 분명히 구분하면서 부랴트어 구사를 민족정체성의 기준에서 점차 탈락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상황에 따라 언어가 민족정체성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민족정체성의 기준에서 탈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참고문헌

박태성, 김선진

1999 “시베리아 소수민족의 이교문화 — 부랴트인 샤머니즘을 중심으로”, 『노어노문학』, 11(1): 347-376.

레이드, 안나 저, 윤철희 역

2003 『샤먼의 코트』, 서울: 미다스북스.

성종환

2003 “러시아 지역정체성 연구방법 — 소수민족 언어정책을 중심으로”, 『슬라브 연구』, 19(1): 23-46.

이용권

2001 “러시아 언어정책과 이중 언어사용”, 『노어노문학』, 13(2): 119-141.

전명선

1994 “소련의 언어정책”, 『중소연구』, 8(1): 179-209.

최한우

1997 『중아아시아입문』, 서울: 펴내기.

허승철

1992 “소련의 언어정책과 언어민족주의”, 『러시아소비에트문학』, 3(1):



142-158.

- 1998 “1994년 러시아 연방 인구조사의 언어자료 분석”, 『러시아연구』, 8(2): 159-186.

Anderson, Benedict

- 2006 *The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Guboblo, M.N.

- 1990 “The General and the Particular in the Development of the Linguistic Life of Soviet Society,” in M.B. Olcott ed. *The Soviet Multinational State*, New York: M.E. Sharpe, Inc., pp. 246-257.

Khanazarov, K. Kh.

- 1990 “Bilingualism,” in M.B. Olcott ed. *The Soviet Multinational State*, New York: M.E. Sharpe, Inc., pp. 239-245

Minahan, James

- 2004 *The Former Soviet Union's Diverse Peoples*, Santa Barbara, Cali.: ABC-CLIO.

Olcott, M.B. ed.

- 1990 *The Soviet Multinational State*, New York: M.E. Sharpe, Inc.

Zhukovskaia Natalia

- 1997 “Current Ethnic, Religious and Political Situation in Republic of Buryatia (Russian Federation),” *Occasional Papers on Change in Slavic-Eurasian World 50*. Slavic Research Center, Hokkaido University. pp. 65-85.

Михайлова, Т. М. 외

- 1990 *ИСТОРИЯ БУРЯТОВ В БЕСПУСТАХ И СТЕПЯ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Бурятской АССР, Г.Улан-Удэ

Терский П. А. 외

- 2001 *Асторьго-культура Бурятия*. Москва: Внешторгиздат.

ПАНОВ В. Г. 외

2004 *СЛОВАРЬ КОРЕЙСКИХ СЛОВ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МОСКВА: Науч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pp. 433-441.

<자료>

<http://www.win2korea.com/words/main.htm>

[http://www.unesco.or.kr/kor/unesco/day\\_year\\_221.html](http://www.unesco.or.kr/kor/unesco/day_year_221.html)

<key concepts>: Buryats, Russians, Language Extinction, National Identity, Language Policy, Everyday Language, Bilingualism

## Language Extinction Crisis and Ethnic Identity among the Buryats in Russia

Yi, Jeongduk\* and Jeon, Bong Su\*\*

The Buryats are a part of Mongolian ethnic groups subjugated by Russia in the late 17th century. In the process of resistance against the subjugation, they formed the Buryat ethnic consciousness.

However, nowadays only about quarter of the Buryats use Buryat language and the number of Buryat language users continuously decreases. Major reasons for that include 1) the Soviet government made Russian language the only official language during the Soviet Union, 2) the school system uses Russian language and allows very few hours for Buryat language, 3) Russians has been the majority (about 70%), the Buryats has been the minority (about 25%), and major social positions are occupied by Russians, 4) those who use Buryat language move to urban areas don't use Buryat language any

---

\* Professor, Department of Archeology & Cultural Anthrop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Archeology & Cultural Anthrop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ore in general, 5) the increasing number of Buryat families use Russian at home, 6) no effective efforts on the government and the congress for Buryat language, and 7) the stigma on Buryat language.

The responses on the decrease of Buryat language usage are different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 young group don't have interest in using Buryat language and they think the Buryatness does not depend on Buryat language usage but on blood and face. However, the old generation still consider Buryat language as the major criteria for the Buryatness.

Rapid decrease of the users of Buryat language makes it impossible to use Buryat language as the main criteria for Buryat identity. Buryat language is in the process of being deleted from the criteria of Buryat ethnic identity.